

통일 칼럼

北의 음악 정치

주민들의 정서까지 국가가 철저히 통제하는 북한에서는 음악 역시 체제 유지와 선전의 도구로 쓰인다. 최고지도자를 향한 찬양과 충성을 담은 가사를 들어보면 과연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궁금하다.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끊임없이 주입되는 북한의 음악 정치, 효과는 있을까. 농사일에 나선 농민들 뜻지않게 분주히 움직이는 이들이 있다.

바로 북한의 예술 선전·선동대이다.

농촌 현장을 찾은 이들은 주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농민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역할을 한다. 북한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선동과 고무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주된 매개체는 음악이다. 농사 관련 노래들을 메들리 형식으로 묶어 내보낸다.

북한의 음악 정치는 단순한 문화, 예술 정책을 넘어서 선전, 선동 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른바 음악 정치는 북한 당국과 김씨 일가가 오랜 기간 이용해 온 대표적

통치 수단이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노골적인 가사에 담아 선전한다. 북한 노래를 보면 '사회주의는 우리 생활, 우리 생명' : '이 세상 떠나선 희망도 없고 이 제도 없으면 조국도 없다네 사회주의는 우리 생활 우리 생명.' 이다.

지도자를 신격화하거나 영웅화하는 데에도 적극 활용된다. 북한 노래에는 <장군님 신묘한 지략에 적진 이 무너진다, 원수들 비명친다>고 되어 있다.

현송월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가수 시절 부른 대중가요에도 최고지도자를 향한 절대적 충성과 헌신의

메시지는 어김없이 담겨있다.

지도자를 신격화하거나 영웅화하는 데에도 적극 활용된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집권 이후 자신만의 음악 정치를 구축해 나갔다. 집권 초기에는 북한관 걸그룹으로 불린 모란봉악단을 창단해 젊은 지도자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을 '아버지'로 칭송하는 가사를 통해 절대권력 구축의 메시지를 내보내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음악 정치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할 이후 회생에 대한 메시지가

부쩍 부각된 것이다.

북한이 국가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결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조국에 대한 내면화된 헌신이라든가 회생이다.

이런 부분들을 감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음악을 통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연결성 있게 내면화시키는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

이 같은 음악 정치는 지난 4월 참전군 전사자 추모 음악회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음악을 통해 전사자들이 김정은과 조국을 위해 희생했다는 점을 거듭 부각한 것이다.

북한은 파병 군인들의 업적과 희생을 기념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를 내부 결집의 계기로 삼는 '영웅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충성과 헌신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하나의 선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음악을 통한 집단주의와 희생정신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음악은 체제 유지와 김씨 일가 부상화의 도구로 활용돼 온 뿐이다.



정복규

논설위원

사설

스포츠맨의 전 재산 공개

손흥민이 확실하게 자신의 위상을 증명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미국·캐나다·멕시코) 월드컵에 나서는 선수들 가운데 재산이 많은 선수 TOP 10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

영국 더 선이 "이번 월드컵에 출전하는 선수들 가운데 가장 부유한 선수는 누구일까?"라는 문구와 함께 월드컵 참가 선수들의 순자산을 분석한 월드컵 부자 선수 순위를 공개했다.

손흥민도 이름을 올렸다. 그는 총 자산 7,400만 파운드(약 1,520억 원)를 기록하며 전체 7위에 올랐다.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선수 1위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였다.

여기에 호텔 사업, 피트니스 센터, 패션 클럽, CR7 패션 브랜드, 영화 스튜디오를 비롯해 기술·유통 사업, 대규모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거대한 사업 제국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리오넬 메시가 그 뒤를 이었다. 무려 7억 4,200만 파운드(약 1조 5,230억 원)를 기록하며 2위에 랭크됐다.

메시는 포브스가 선정한 2026년 세계 스포츠 선수 수입 순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입을 기록했으며, 후원 계약 목록에는 아디다스, 펠시, 돌체앤가바나, 오데마 피게, 질레트, 터키항공, 타타 모터스 등이 포함돼 있다"라고 밝혔다.

그밖에 네이마르(3억 3,400만 파운드), 킬리안 음바페(1억 8,600만 파운드), 해리 케인(1억 1,000만 파운드), 모하메드 살라(1억 400만 파운드)가 각각 3, 4, 5, 6위를 차지했다.

현대서각 교류전 개최

(사)한국서각협회 진안지부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예술화관 기스라 전실에서 제17회 회원전인 '2026 현대서각 교류전(부제: 시로 짓는 서각화)'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시(詩)로 짓는 서각(書)'이다. 참여 작가들은 나무리는 무정물 위에 정과 망치를 들고 오랜 시간 씨름을 했다.

사랑하는 시 한 편, 마음속에 간직한 문장 등 삶의 철학과 온기를 한 자 한 획마다 정성스럽게 새겨 넣은 주옥같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전시에는 춘정 김호경(한국서각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장)의 '운조루', 소연 임채순 지부장의 '더불어 사는 세상', 천문 소운호 사무국장의 '산유화' 등 초대작가

들의 깊이 있는 작품을 비롯해 총 40여 점의 개성 넘치는 작품이 관람객을 맞이했다.

한국서각협회 진안지부는 소박한 창작 공간인 '진안창작공예공방'에서 시작한 20년의 세월 동안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까지 총 10명의 초대작가를 배출하는 등 진안군 문화예술의 품격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왔다.

임채순 진안지부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니한 영거주촌한 계절에 자연이 인간에게 준 여유로운 마음의 속내를 글과 새김의 잔치로 펼치고자 한다"라며 "마음을 꺼내놓는 글과 문장 하나마다 천금의 가치를 지닌 만큼, 이번 전시가 많은 분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하는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에블라 환자 격리소로 옮기는 민주콩고 의료 관계자들



지난 11일(현지 시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이부리주 부니아 종합병원에서 의료 관계자들이 에블라 확진 환자를 격리소로 옮기고 있다.

테일러 스위프트, 최연소 女 작곡가 명예의 전당 입성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11일(현지 시간) 뉴욕의 매리엇 미르키스 호텔에서 열린 '제58회 작곡가(Songwriter) 명예의 전당(SHOF) 입성 시상식·갈라'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올해 36세인 스위프트는 역대 여성 아티스트 중 '최연소 입성'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1969년에 설립된 SHOF는 세계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사랑받은 노래로 꼽히는 영향력을 미친 작곡가를 선정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